

## David Howard 박사, Joshua-Ruth, 세션 7

### 여호수아 3-4

© 2024 데이비드 하워드와 테드 힐데브란트

룻기를 통해 여호수아를 가르친 Dr. David Howard입니다. 7회기 여호수아 3-4장, 요단강 건너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의 이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섹션을 살펴볼 것이며 그것들은 일종의 함께 속합니다. 3장에서는 마침내 요단강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기 위한 준비 과정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4장,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횡단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4장은 그것을 되돌아보고 기념합니다.

이것이 이 장의 핵심입니다. 시작 부분인 횡단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그 첫 번째 단계를 3장 1절부터 6절까지라고 부를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싯딤에서 출발하는 것을 봅니다.

싯딤의 정확한 위치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요르단강 동쪽으로 10마일 이내일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갈 준비를 하기 위해 강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절 끝 부분에서 요단강에 이르렀고, 건너기 전에 거기에서 묵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사흘이 지나면서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 다니며 언약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지를 백성에게 명하니라. 이제 1장 11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라고 지시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이 3일이 1장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내 견해로는 두 날이 서로 다른 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절부터 3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3일이 더 있으며 실제로 총 6일 또는 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는 그

자체로 7일 또는 6일에 1을 더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일종의 상징적 준비일 수 있습니다. 1장 11절의 언어는 약간 다릅니다.

장교들은 사람들에게 3일 안에 식량을 준비하거나 이동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3장 2절에서 그들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실제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논평가들이 그 문제의 양쪽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절에서 약 천 야드, 2,000큐빗, 1큐빗은 약 18인치 의 거리를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과 방주 사이에 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방주 자체가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으신다면, 그것은 성막 안에, 어떻게든 성막과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구름 속이나 성막 안에 있을 것입니다.

성막 안에는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본질적으로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인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움직일 때 성막도 움직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은 거룩함의 요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거룩함이나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론 부분에서 말했듯이, 나는 거룩함이 이 책의 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그 예입니다. 그들 자신은 모독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과 우리가 5장에서 발견한 것들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경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시점에서 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5절에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별하라고 지시합니다. 현대 서구 국가와 영어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것은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무언가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음 날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어로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니 플라웃 입니다 . 히브리어로 기적에 가장 가까운 단어입니다. ESV는 여러분 사이에서 경이로움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나는 놀라운 일, 경이로움, 경이로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이것에 참여하거나 관찰하기에 합당하게 만들려면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장의 이 부분에서 언급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확신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안다(KNOW)라는 단어는 여기서 전략적인 위치에 세 번 등장합니다. 4절에 보면, 방주로 가까이 가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갈 길을 알리라 너희가 전에 이 길로 지나 본 적이 없음이니라.

내 생각엔 거기에 말장난이 있는 것 같아. 어쩌면 부분적으로, 문자 그대로 여러분은 이 길을 걸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건너야 할 요단강으로 내려가려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기 위해 방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상징적으로, 좀 더 은유적으로, 법궤를 따라가며 더 나아가 법궤 속 돌판에 적힌 계명과 하나님의 지시 등을 따르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경외심을 유지하십시오. 알아야 할 두 번째 언급은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높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호수아가 후계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다는 표시라고 말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수아는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 모든 땅을 너희 앞에서 정녕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보면, 언약궤가 너희보다 앞서 요단강으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여호와와 의 징조가 무엇인지 그들이 알 것이라.

그래서 거기에는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이라는 개념은 아는 것의 어휘에서 발견됩니다. 5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메도록 지시합니다. 이것이 언약궤임을 주목하라. 우리가 이 책의 일부로 언급한 주제 중 하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상징하는 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법궤를 메고 사람들 앞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궤와 언약을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자, 제가 앞서 언급한 또 다른 주제 중 하나는 순종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것에 대한 아주 작은 그림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시입니다. 보고서 또는 그것이 명령이라고 가정 해 봅시다. 그리고 그 명령의 실행에 대한 보고는 6절 다음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단어가 pass on에서 goes로 변경된 것을 제외하면 문자 그대로 명령의 단어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책의 저자는 여호수아가 말한 것이 바로 이렇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들이 자신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방법으로 그것은 순종이라는 주제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들은 백성인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가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 가만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언급한 이 장의 첫 번째 부분인 1단계는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지시 사항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추가 지시 사항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백성 앞에서 높여 네가 모세의 후계자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를. 여기서도 약속의 일부와 약속의 성취가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제가 방금 읽은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장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평생에 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따라서 두 장의 범위 내에서 우리는 약속을 갖고 그 약속의 성취를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 성취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는 장 수준의 또 다른 작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시는 요단강 옆으로 가라는 것입니다(8절).

그리고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것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절 또 그가 반드시 이 모든 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였느니라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7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다. 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는 지도를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북쪽을 주었으니 그곳이 히타이트 제국이니라. 이때는 대략적으로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히타이트인을 언급하는 방식도 따로 있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가나안에 살고 있는 더 작은 집단의 사람들일 것이며, 거대한 히타이트 제국의 일부가 아니라 더 작은 집단일 것입니다. 헷 제국 이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도 헷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마도 히타이트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지역적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이 시점에서 신명기의 한 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7장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 나라들에 관해 뭔가를 지적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7장에서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보다 먼저 일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는 1절과 2절, 적어도 1절에서는 이 나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 앞에서 많은 민족을 멸하실 때에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언급합니다. 7개 국가, 역시 같은 그룹, 같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1절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너보다 많고 강대한 일곱 나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소수민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기된 한 가지 질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얼마나 컸습니까? 그리고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장정 60만 명과 여자들과 아이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와 자녀를 합산하면 아마도 200만에서 300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집트에서 나와 시내산을 건너 그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꽤 큰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곱보다 작은 소수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니라. 따라서 인구는 2,100만, 2,400만 명입니다. 이것이 맞다면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는 곳이 없습니다. 땅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수천년에 걸쳐 기후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어쩌면 그때는 더 비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숫자에 대한 이해에 회의적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숫자를 알아내는 또 다른 방법은 600,000이고 히브리어로 천이라는 단어는 eleph 입니다 .

eleph 와 자음이 같은 관련 단어가 있습니다 . 이는 군사 회사나 군대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규모 소대나 사람들로 구성된 중대처럼 10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숫자로 따지면 600,000,600 코끼리 라는 숫자는 600 코끼리 였을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10명의 전투원으로 구성된 600개 중대가 될 것이며, 이는 군인 연령의 남성과 여성 및 어린이를 포함하여 약 6,000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십만 또는 수백만 명이 아니라 수천 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숫자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고려하면 그것이 더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신명기 7장에서 내가 강조하는 점은 동일한 수의 국가들이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보다 더 크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나라들을 취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심으로써 행하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기 있는 동안 다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넘기고 신명기 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지시는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 마음에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이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아,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것입니다. 4절에 이어서, 사실은 그 민족들의 악함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이라. 5절, 네가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은 네 의로움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니라.

그러나 그 민족들이 악하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확증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에 대한 대답의 일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대답의 일부는 그들 자신의 사악함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에 대해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그 논의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의 일부입니다. 그럼 여호수아 3장으로 돌아가서 언급된 10개 나라와 함께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서는 언약궤에 대해 언급합니다. 온 땅의 주님께서 네 앞을 지나가신다. 궤 또는 언약궤라는 단어는 이 13절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마치 14절부터 시작하여 실제로 건너기 전 첫 번째 부분의 실제 초점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제사장의 영혼과 발이 온 땅의 주이신 여호와와 궤를 메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물에 쉬면 물이 끊어져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미래를 내다 보는 것입니다. 이제 표면적으로 우리는 3장이 실제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간결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 등에 관한 책에서 실제 행동의 시작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부차적인 효과입니다. 책의 저자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 두 장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즉 저자의 관심이고 저자의 흥분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 저자는 지금 우리가 14절부터 16절까지 읽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에 흥분합니다.

그럼,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모두 실제 사건 자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자체가 14절부터 1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일종의 느린 축적입니다. 12절과 13절에는 명령이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에서 저자는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 그들이 어떻게 일하기 시작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장막에서 나갈 때 히브리어 방식으로 그 구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구문상 14절과 15절 모두가 주요 사건인 16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보세요. 앞서 모음 연속의 순서에 대해 언급했는데, 14절과 15절에는 연속 모음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있고 16절에서 해결됩니다. 따라서 14절과 15절은 모두 삽입되어 16장의 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걸 포착합니다.

그래서, 또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고, 킹제임스 왕이 말하곤 했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하위 항목은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천막에서 출발했을 때이고, 두 번째 하위 항목은 백성 앞에서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과 함께 있고, 세 번째 하위 항목은 15절이며, 그들이 그 법궤를 얻었을 때입니다. 법궤를 짊어진 사람은 요단강까지 도달했습니다. 네 번째 하위 지점입니다.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을 때 이제 훨씬 더 괄호 옆에 괄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는 괄호가 있습니다. 15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런데 추수 때에 요단강이 온 강물에 넘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그것의 목적은 히브리어 구문상 종속절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요점은 이스라엘이 평소에 할 수 있는 시간에 요르단을 건너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널 수 없습니다.

건기가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들은 발끝으로 건너갈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었고, 물이 발목까지 차는 채로 건너갈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강의 수위가 가장 높은 때이고, 이는 앞으로 일어날 위대한 기적에 대한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14절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

네 가지. 물을 나타내는 동사는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음, 강조하면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흙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일어서서 첫 번째 동사가 되고, 물이 한 덩어리가 되어 아주 멀리, 멀리, 두 번째 동사로 솟아오르니, 사르단 맞은편 아담이라는 성읍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그곳은 그들이 건너는 곳에서 꽤 몇 마일 떨어진 북쪽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요단강 물이 그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다른 방식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일어섰고 두 가지 다른 동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라바의 바다, 염해, 즉 사해를 향해 흘러내립니다. 그 구절의 다음 부분은 제 버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두 개의 동사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단절되고 중단됩니다. 그래서 한 구절의 범위 안에는 물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네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의 마지막 문장이나 절에서는 백성들이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문론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에 이런 일을 행하시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그런데 잊지 않도록 하자면 그들은 요르단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말하려는 것은 그게 아니다. 저자가 말하려는 요점은 하나님께서 물로 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2장에서 라합이 홍해에서 이집트인들이 패배한 것을 언급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기에도 비슷한 종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큰 기적, 이 물을 막는 일에 경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물은 건기 동안이 아니었고, 그것은 가장 큰 때였습니다.

그래서 17절의 결론에 보면,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마른 땅 위에 굳게 섰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흙, 땅, 먼지, 땅에 대해 말하는 다양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알라 샬(Yalasha)입니다. 마른 땅과 젖은 물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었던 때를 언급하면서 네 번에 걸쳐 사용된 단어입니다. 진흙탕 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말리셨습니다.

이는 요나서에서 물고기가 요나를 마른 땅에 토해낼 때 사용된 동사입니다. 따라서 항상 건조한 땅과 젖은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물이 솟아오르고 그들이 건너고 있는 곳은 다시 진흙땅이 아니라 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멘 제사장들은 마른 땅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홍해에서의 기적을 즉시 상기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 흔한 단어는 아닙니다.

몇몇 장소에서만 발생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요단 강을 건널 때까지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횡단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우리가 이 기적 자체에 감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4장은 우리가 물의 기적에 더욱 경이로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책의 동작에 일시 중지 버튼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12명에게 와서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2절, 3절)를 가져다가 오늘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2명의 남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이 12개의 돌의 목적은 제단을 쌓는 것이지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기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9-11 테러와 다른 종류의 대규모 사건에 대한 기념패를 갖고 있는 것처럼 기념패를 갖는 방식입니다. 6절. 이는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징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장래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을 때, 이 돌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구에 주목하세요. 이곳이 A에서 B로 건너가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7절에 요단강 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고 그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것은 주절이 아니라 종속절이었습니다.

요르단 물이 끊어졌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다른 시간, 두 개의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다시, 3장 7절에서는 '미안해요' 4장 7절의 기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장 16절의 기적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12개의 돌을 가져갑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직접 돌 몇 개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돌 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을 건너갈 때 표시를 위해 12명의 남자가 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멀리서 이것을 표시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너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수아 자신이 이 돌들을 가져다가 독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그 반대예요.

여호수아가 직접 강에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남자들은 그들을 은행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9절은 일종의 삽입적 플래시백인 것 같아요.

두 개의 서로 다른 돌 세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령한 대로 다 행했습니다. 10절에서 모든 것에 대한 개념이 반복되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모두가 주님과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책에 따라 모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급히 건너갔고 방주가 나오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냥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돌의 중요성에 대한 일종의 반복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마른 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달 10일에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들이 세운 12개의 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이르시되 21절.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자기 조상들에게 묻거든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네 자손에게 알려야 한다. 동사 pass over가 독립절에 있어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른 땅 위로 지나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여전히 그 기적에 대한 강조점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너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홍해를 말리신 여호와께서 홍해에 행하신 것과 같이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요단 물을 말리시고 너희가 건너게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홍해와의 연관성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전의 일부 어휘에서는 암시적이었지만 지금은 명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은 이곳에도 요단강과 함께 더 작은 규모로 재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은 이것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기 때문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외부적인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내부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큰 기적을 행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24a절, 이는 땅의 모든 족속으로 여호와와 그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3장의 첫 부분인 3장에서 이스라엘이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갈망은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강하신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에 대한 외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둘째로, 마음으로는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 주 하나님에 대하여 합당한 경외심과 경외심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개념은 단순히 겁을 먹고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경외심 과 경외심, 그분을 합당한 명예로 모시는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러 번 반역했던 광야 세대와는 다소 대조적입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으며 순종이 훨씬 더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 장은 기적의 목적이 두 가지라는 결론으로 끝납니다. 하나는 열방에게 증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책에 대한 내 자신의 개요에서 나는 5장 1절이 실제로 3장과 4장의 결론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24절은 그들이 알게 될 열국에 대한 이 외적인 증언을 말합니다. 바로 다음 내용입니다. 원본 사본에는 장과 절 번호가 없으므로 여기에는 실제 중단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알기를 바랍니다. 바로 다음 말씀은 5장 1절입니다. 곧 요단 이편 서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이 바다에서 들었나니 라합이 말한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명성은 모든 면에서 그보다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요단강 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갈 때까지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는

2장에 있는 라합의 말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 속에는 더 이상 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의 맨 처음에 라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로 인해 여러분 모두를 두려워합니다. 이제 책의 내용이 실제로 전개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큰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는 왕들이 놓고 그 안에는 영이 없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이는 라합이 말한 내용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24절 4장 24a절의 성취로서 열방이 여호와와 그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성취는 5장 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실제로 전체 섹션의 끝이고 우리가 이 세그먼트를 끝내는 곳입니다.

룻기를 통해 여호수아를 가르친 Dr. David Howard입니다. 7회기 여호수아 3-4장, 요단강 건너기입니다.